

深山마을서 野生동물 보호운동

暴雪로 굶주린 고라니등 保護후 되돌려 보내 江原道와 山林廳 옥수수등 9천kg 뿌리기도

폭설이 내린 강원도 지방에는 밀렵꾼들의 야생조수남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사이에선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는 짐승 보호운동이 활발히 일고 있다.

지난 2월 5일 오전11시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광산3리에서는 주민들과 산짐승사이에 이색환송식이 베풀어졌다.

이 마을 金萬澤씨(34·농업) 집에 들어온 산토끼 한쌍과 수고라니 한마리를 숲속으로 되돌려 보내줬.

金씨는 지난 1월30일 이른 아침 집앞 울타리 옆에 허리가 넘는 눈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 동물들을 발견했다.

굶주림에 지친것으로 판단, 마른풀을 입에 갖다줬더니 겁도없이 달려들었고 사랑방까지 따라 들어왔다는 것.

金씨는 눈이 녹으면 돌려보내리라 마음먹고 사랑방에 벼집을 깔아주고 방에 군불을 지피는등 정성을 다했다.

하룻밤을 지내고도 산토끼와 고라니는 떠나려 들지 않았다. 마을사람들은 서울사람에게 팔든지 우리를 지어 기르라고 했으나 金씨는 “내집에 찾아온 동물은 귀하게 여겨야한다”며 듣지않았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洪淳侑고성 군수는 옥수수와 콩 감자등 이들이 좋아하는 먹이 10kg을 보내왔다.

처음 탈진상태에 있던 산토끼와 고라니는 金씨등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차츰 기력을 회복, 사흘이 지나고부터는 마을 뒷산을 그리며 뒷밭로 문짝을 걷어차기 시작했다 마을뒤 갈대밭에 눈이 녹은 이날 金씨가죽은 산토끼와 고라니를 안고 갈대밭으로 갔다.

엉덩이를 떠밀어도 뒷걸음질치던 고라니와 산토끼들은 金씨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후려치고 마을사람들이 「위이」하는 소리를 지르는 순간 쏠살같이 산등성이를 넘어 사라졌다.

지난 2월 1일 오후 5시30분쯤엔 삼척시 정라동 마을 뒷산에서 이마을 金容海군(17·삼척고3년)이 허리까지찬 눈속에서 먹이를 찾다 지쳐쓰러져있는 3년생 고라니 수컷 한마리를 발견 집으로 옮겨와 보호하고 있으며, 4일 오후 1시40분쯤엔 폭설로 먹이를 찾아 삼척시 도원동 도경2리 金源詢씨(53·농업)가 집앞 마당에 들어온 수고라니 한마리와, 이웃 사직동 조비2리 金基喆씨(35)가 마을 뒷산에서 눈속에 빠진 수고라니를 집으로 옮겨 먹이를 주며 기르고 있다.

지난 3일 낮 12시쯤엔 명주군 주문진읍 교항리 마을로 먹이를 찾아 내려온 암컷 고라니 한마리를 이마을 金漢圭씨(52·농업)가 붙잡아 보호하고 있다.

3일 오후4시쯤엔 양양군 손암면 우암리 뒷산에서 먹이를 찾고있는 고라니 한마리를 이마을 林根雨씨(30)가 붙잡아 헛간에 짚을 깔아주고 옥수수와 감자등 먹이를 주며 정성껏 보살폈으나 생포 당시 굶주림으로 탈진상태가 너무심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4일 오전죽기도 했다.

한편 강원도는 폭설로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는 야생조수 보호캠페인과 함께 먹이주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또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주민에게는 고라니 노루등의 경우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기도 했다.

도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고성 원주군등 도내 20개 시·군 3백54개소에 공무원, 주민등 1천8백13명을 동원, 옥수수 1천4백68kg을 비롯, 콩 4백

95kg, 벼 1백50kg, 들깨 10kg, 배합사료 1천2백65kg, 보리 50kg, 감자·5백60kg, 기타 5백24kg 등 7종의 먹이 4천9백77kg을 계곡과 숲속 호수 주변과 평야지대에 뿌려주었다.

원주군의 경우 지난 3일과 4일 원주군 판부면 금대리 치악산일대 10개소에서 공무원 주민등 1백50명이 나와 옥수수, 콩등 2백50kg의 먹이를 뿌렸고, 태백시는 4일 태백시 소포동 태백산 숲속 7개소에 2백90kg의 먹이를 주었다. 철원군도 4일 30명의 공무원을 동원, 철원군 동성읍 관우리 철원평야에 벼, 콩등 조수먹이 1백50kg을 뿌렸다.

산림청은 오는 7일 치악산 및 오대산 국립공원일

대에 헬기 5대를 동원, 콩, 옥수수, 배합사료등 4천kg의 야생조수먹이를 공중투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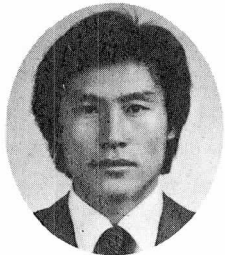
李相龍강원지사는 “야생조수보호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줄것”을 당부하고 “밀렵꾼에 대해서 경찰과 협조,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2. 6. 조선일보)

國立公園管理事務所 먹이撒布

한편 국립공원 관리공단 산하 설악산관리사무소 (소장 李昌憲)를 비롯한 각관리사무소 관리요원들도 겨울철 조수보호운동에 나서 먹이살포를 요소에다 실시했다.

會員의 편지

“이곳에서 꼭 國立公園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89年 4月 日本千葉大

造園學科에 留學

風景計劃研究室의 博士課程研究生 趙泰東會員

존경하는 국장님 소식이 늦어죄송합니다. 저는 1988년까지 淸州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조교로 근무했으며 碩士과정을 마치고 89년 4월에 日本으로 유학왔습니다. 석사논문은 “국립공원야영장”에 관하여 썼으며 국장님과 협회에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현재 이곳 千葉縣의 千葉국립대학造園學科 風景計劃研究室에서 博士과정研究生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곳 연구실에는 자연공원(국립·국정·都道府縣立공원)에 대한 연구를 하고계시는 이시이(石井 弘) 교수님과 유이(油井 正昭)교수님 두분에 계십니다.

제가 늦게 소식올리게 된것을 정말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부탁말씀을 올리는것은 이곳에서 꼭 國立公園誌를 받아보고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방법, 그리고 90년도의 회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이곳에서 필요하신것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고 또 日本에 출장오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저의 집전화(생략)

끝으로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님, 회원여러분께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편집자 주) 趙회원이 유학중인 지바(千葉)대학과 쓰꾸바(筑波)대학에는 우리나라의 석·박사과정 유학생이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일본 文部省(문교부)에 선 작년부터 2년간에 걸쳐 양대학에다 地球問題海外研究 과제의 하나인 “한국과 일본의 綠地比較研究” 학술조사를 의뢰하여 양대학의 저명교수진이 내한하여 자료수집과 자연공원등을 시찰하고 있다. 본회는 趙회원의 학업에 도움을 주도록 회지(42~44/45회)를 우송하고 일본 자연공원에서 느낀것을 수시로 회지에 발표토록 요청하는 답신을 2월 3일 발송했다.